

남자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Quality of Life,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박연우*, 김경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Yeon-Woo Park(yeonwoo-park@daum.net)*, Kyung-Hee Kim(kyung@cau.ac.kr)**

요약

남자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A시 소재의 1학년, 2학년 남자 고등학생 569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직업, 어머니 학력, 학업성적, 경제 수준, 흡연과 음주 유무, 자살시도나 자살생각이 학교적응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학업성적, 자살생각,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1.4%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주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된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삶의 질 | 가족건강성 | 자아탄력성 | 학교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school adjustment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569 male high school students (1th and 2nd grade) in A city. We analyzed quality of life,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subjec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AS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ool achievement, financial abilities, job of father, scholarship of mother, smoking and drinking alcohol,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The school achievement, suicidal ideation, and other quality of life, family strength, self-residence explained 61.4% of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if we develop the program which focusing on quality of life,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we could make a meaningful improvement of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

■ keyword : | Quality of Life | Family Strength | Self-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접수일자 : 2014년 12월 01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1월 06일

교신저자 : 김경희, e-mail : kyung@ca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한 사회의 미래의 주역들이고, 건강한 청소년은 밝은 미래를 가진 사회를 약속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중도 이탈,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적응은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1].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잘 조화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다[2]. 그러나 교육부 보도자료[3]의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는 3만 4천 934명으로 고교 재적학생수의 1.82%에 달하는 비율이다. 학업 중단 사유 중 자퇴가 3만 3천 553명(96.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1만 7천 454명(49.96%)으로 절반에 달했다. 청소년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유해 환경의 자극, 급증하는 이혼율로 대변되는 가정의 와해 등, 사회 환경적인 다양한 문제들과 스트레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상황에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부적응을 겪거나 좌절하며 갈등과 무력감에 시달린 나머지 급기야는 학교를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1]. 이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사회 전반의 적응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정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4].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이나 가족 특성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족의 경제수준, 종교, 성별, 학년, 학업성적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건강성[4-6], 자아탄력

성[5][7][8], 삶의 질[8][9] 등과 같은 학교적응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개별적 연구들이 다수 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학교 적응 정도를 보인다는 연구[10][11]도 있으나 주현정[12]과 구자은[13]은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은 학교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 관련요인인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기능적인 영역에 대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녕상태를 말하며[14], 개인의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독립의 수준, 사회적 관계, 환경 특유의 양상 등에 의해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기 삶의 질은 결과이자 현재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생활의 지표이다. 청소년기의 낮은 삶의 질은 향후 가출,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성범죄, 자살 등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한다[15]. 그러므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들은 학업,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과 같은 학교 환경 속에서 잘 적응을 한다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7], 청소년이 인지하는 삶의 질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 나가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다[16].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의 사랑, 행복, 개별성, 존중 등 가족원 간의 정서적·유대적 특성, 가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가족 가치관의 공유, 의사소통 등을 도모하는 가족을 의미한다[17]. 그래서 가족관계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과 신뢰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만족스런 일상생활의 적응으로 이어지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에 대한 환경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8]. 이숙영[5]은 가정환경은 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감소시켜 학교적응에 향상을 가져온다

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교적응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교부적응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결국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 등이 긍정적이고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10].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교중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사회적,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19].

우리나라처럼 입시가 강조되고 항시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된 교육환경에 직면한 경우 자아가 탄력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은 더욱 학업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5]. 자아탄력성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이 높으며 부적응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다[20]. 자아탄력성을 외적 스트레스와 내적 긴장에 대해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낯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높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21]. 자아탄력성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5][7].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과 같이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 관련요인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별적 요인과 학교적응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로서,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을 돕고자 함이다.

첫째, 대상자의 삶의 질, 가족 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삶의 질, 가족 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시 소재의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 임의표출 하였다. 예상 표본수는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예측변수 15개,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05, 검정력 95%로 계산하였을 때 표본수가 543명이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탈락율과 응답율 미비를 고려하여 설문지는 580부를 배부하였고, 569부를 분석에 활용하여 대상자의 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은 후 청소년이 인지한 삶의 질, 가족건강

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나이, 주관적 학업성적, 경제상태, 거주 지역, 종교, 흡연, 음주, 가출, 성격형유무 등 개인특성 12문항과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출생지 등 가족특성을 7문항으로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2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에 따라 개발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민성길 등[22]이 표준화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문항(7문항), 심리적 문항(6문항), 사회적 문항(3문항), 생활환경 문항(8문항), 전반적 문항(2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민성길 등[22]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3.3 가족 건강성(Family strengths)

가족의 건강성은 유영주[6]가 한국문화 및 가족 특수성에 맞게 제작된 가족 건강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10문항), 유대의식(8문항), 감사와 애정정서(8문항), 긍정적인 의사소통(7문항), 가치관 목표 공유(8문항), 역할 충실(6문항), 문제 해결(9문항), 경제적 안정(5문항), 사회와의 유대(7문항)로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전체 Cronbach's $\alpha = .97$ 이었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 .85 \sim .8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3.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이해리와 조한익[23]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으로 개인 내적 특성(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의지적 차원, 영성 차원) 24문항과 외적 보호요인(학교 차원, 가정 차원, 지역사회 차원, 또래 차원) 24문항으로 총 48문항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전체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요인별 Cronbach's $\alpha = .62 \sim .96$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5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김정남[24]의 학교적응 척도를 이용하였다. 학업(6문항), 심리적 안정성(4문항), 사회관계(6문항), 학교생활(4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전체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요인별 Cronbach's $\alpha = .74 \sim .86$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수집된 정보는 비밀보장이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철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고, 연구 참여 결정은 자발적인 의사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 청소년이 설문지 질문에 답변을 기입하는 방식의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연구대상 577명이 자료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5부와 극단적인 응답이 있는 3부를 제외한 총 569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 1041078-201312-HR-00115-04)을 얻고, A시 소재의 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시행하는 학년에 사전 승인을 받고, 대상자들에게 연구 제목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연구에 참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작성된 연구 동의서 사본 한부를 대상자에게 수령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7.6세이었으며, 형제 수는 1.4명으로 외동인 경우가 많았다. 부모 나이는 아버지 평균 48.3세, 어머니 45.3세이었다. 대상자의 52.4%는 자신의 학업성적을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답하였으며, '하' 정도 수준이라고 답한 학생은 34.1%, '상' 정도 수준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13.5%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중' 정도 77.0%, '하' 정도 14.2%, '상' 정도 8.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77.7%가 시, 군 단위에 살고 있다고 답하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67.7%, 흡연과 음주 경험은 26.4%와 43.4%가 있는 것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69)

변수	Mean	SD	
나이	17.63	0.54	
형제 수	1.39	0.86	
부 나이	48.27	4.06	
모 나이	45.32	3.93	
변수	N	백분율(%)	
학년	1학년	178	31.4
	2학년	391	68.6
학업 성적	상	77	13.5
	중	298	52.4
	하	194	34.1
경제 수준	상	50	8.8
	중	438	77.0
	하	81	14.2
거주 지역	시, 군	442	77.7
	읍, 면	127	22.3
종교	예	184	32.3
	아니오	385	67.7
흡연	예	150	26.4
	아니오	419	73.6
음주	예	247	43.4
	아니오	322	56.6
가출	예	66	11.6
	아니오	503	88.4
성관계	예	30	5.3
	아니오	539	94.7
자살 시도	예	22	3.9
	아니오	547	96.1
자살 생각	예	130	22.8
	아니오	439	77.2
아버지 동거 여부	예	504	88.6
	아니오	65	11.4
아버지 직업	정규직	475	83.4
	비정규직	79	13.9
	무직	15	2.7
아버지 학력	중졸	40	7.1
	고졸	310	54.5
	대졸이상	219	38.4
어머니 동거 여부	예	530	93.1
	아니오	39	6.9
어머니 직업	정규직	282	49.6
	비정규직	94	16.5
	무직	193	33.9
어머니 학력	중졸	40	7.0
	고졸	383	67.3
	대졸이상	146	25.7

으로 나타났다. 가출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6%,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경험은 없는 경우가 96.1%로 많았고, 자살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77.2%로 자살에 대해 생각한 경우보다 많았다. 부모관련 특성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88.6%, 아버지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는 83.4%,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상이 경우 92.9%로 나타났다. 어머니 관련 특성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는 93.1%, 어머니가 무직이거나 주부인 경우는 33.9% 이었고, 어머니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93.0%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정도 (N=569)

하위항목	Mean	SD
삶의 질(26)	3.23	0.71
전반적 상황	3.74	0.79
신체적 건강	2.89	0.58
정신적 건강	3.15	0.66
사회적 관계	3.33	0.80
생활환경	3.41	0.71
가족 건강성(68)	3.62	0.85
가족원에 대한 존중	3.71	0.79
유대의식	3.64	0.83
감사와 애정정서	3.73	0.81
긍정적인 의사소통	3.57	0.89
가치관 목표공유	3.55	0.82
역할충실	3.69	0.84
문제해결 능력	3.66	0.84
경제적 안정	3.17	0.83
사회와의 유대	3.23	0.96
자아탄력성(48)	4.06	0.79
개인내적특성	4.11	0.78
외적보호요인	4.00	0.80
학교적응(24)	3.28	0.82
학업	3.22	0.81
심리적 안정	2.68	0.93
사회관계 영역	3.55	0.75
학교생활	3.55	0.77

2. 대상자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정도

남자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 가족 건강성, 자아탄력성 그리고 학교 적응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삶의 질 수준은 5점 만점으로 평균 평점 3.23점이었다. 전반적 상황은 3.7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건강 수준은 가장 낮은 점수 2.89점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N=569)

변수	항목	학교적응	
		M±SD	t to F (p)
학년	1학년	67.8±10.7	0.19 (.823)
	2학년	68.2±11.6	
학업 성적	상	74.9±12.1	35.87 (<.001)
	중	69.3±10.4	
	하	63.5±10.3	
경제 수준	상	72.6±12.3	14.77 (<.000)
	중	68.6±10.9	
	하	62.6±10.6	
종교	예	69.1±11.9	-1.50 (.134)
	아니오	67.6±10.9	
흡연	예	65.9±10.5	2.88 (.004)
	아니오	68.9±11.4	
음주	예	66.7±10.8	2.66 (.008)
	아니오	69.2±11.5	
가출	예	198.1±33.6	0.77 (.444)
	아니오	68.3±11.3	
자살 시도	예	60.6±10.2	3.20 (.001)
	아니오	68.4±11.2	
자살 생각	예	63.7±10.4	5.17 (<.000)
	아니오	69.4±11.2	
성 관계	예	67.3±11.1	0.43 (.670)
	아니오	68.2±11.3	
거주지역	시,군	68.8±11.1	4.15 (.016)
	읍,면	65.8±11.4	
부 동거	예	68.4±11.2	1.43 (.154)
	아니오	66.2±11.7	
부 직업	정규직	68.8±11.5	3.03 (.049)
	비정규직	66.0±9.1	
	무직	64.3±13.3	
부 학력	중졸	65.3±7.8	1.62 (.154)
	고졸	68.1±11.1	
	대졸이상	69.4±11.8	
모 동거	예	68.3±11.3	1.76 (.078)
	아니오	65.1±10.4	
모 직업	정규직	68.2±11.0	1.69 (.186)
	비정규직	66.5±11.3	
	무직	69.1±11.9	
모 학력	중졸	66.7±9.7	2.42 (.035)
	고졸	68.4±11.3	
	대졸이상	68.6±11.7	

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은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62점으로, 중앙값 3점 이상을 넘어 다소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 중에서 감사와 애정 정서영역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안정이 3.17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6점 만점으로 평균 평점 4.06점으로 개인내적특성 4.11점과 외적보호요인 4.00점을

나타내어,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중앙값보다 높았다. 학교적응 정도는 5점 만점으로 평균평점 3.28점으로 중간 이상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사회관계 영역 3.55점, 학교생활 3.55점, 학업 3.22점, 심리적 안정 2.68점 순으로 학교적응 정도를 나타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학교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표 3]와 같다.

대상자는 학업성적($F = 35.87, p < .001$)이 좋을수록, 경제수준($F = 14.77, p < .001$)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교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흡연($t = 2.88, p = .004$), 음주($t = 2.66, p = .008$)를 하지 않거나, 자살시도($t = 3.20, p = .001$)나 자살생각($F = 5.17, p < .001$)을 하지 않을 때, 학교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t = 4.15, p = .016$)이 시·군 지역인 경우, 아버지의 직업($F = 3.03, p = .049$)이 정규직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F = 2.42, p = .035$)이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교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변수	삶의 질	가족 건강성	자아 탄력성	학교 적응
	r(p)			
삶의 질	1			
가족 건강성	0.63 ($< .001$)	1		
자아 탄력성	0.63 ($< .001$)	0.70 ($< .001$)	1	
학교 적응	0.60 ($< .001$)	0.63 ($< .001$)	0.72 ($< .001$)	1

4.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남자 고등학생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학교적응은 삶의 질($r = .60, p < .001$), 가족건강성($r = .63, p < .001$), 자아탄력성($r = .72, p < .001$)과 강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삶의 질이 좋을수록 학교적

응 정도는 높아지고, 가족건강성이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좋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	β	SE	t	pr > t	VIF	
Intercept	32.97	2.66	12.40	$< .001$	0.00	
학업성적	-2.86	0.47	-6.14	$< .001$	1.09	
거주지역	-0.47	0.36	-1.31	.191	1.04	
가출여부	-0.82	0.96	-0.85	.393	1.09	
자살생각	-1.88	0.75	-2.50	.013	1.17	
삶의 질	신체적 건강	-0.13	0.11	-1.25	.489	2.08
	정신적 건강	0.47	0.11	4.24	$< .001$	2.72
	사회적 관계	-0.10	0.17	-0.55	.580	2.33
	생활환경	0.22	0.09	2.39	.017	3.06
가족건강성	0.03	0.01	3.58	$< .001$	2.38	
자아탄력성 (개인내적특성)	0.04	0.03	1.26	.208	4.58	
자아탄력성 (외적보호요인)	0.23	0.03	7.21	$< .001$	4.15	

R-Square = 0.62, Adj R² = 0.61, F = 83.31

5.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회귀분석의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적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은 학업성적($\beta = -2.86, p < .001$), 자살생각($\beta = -1.88, p = .013$), 정신적 건강상태($\beta = 0.47, p < .001$), 생활환경($\beta = 0.22, p = .017$), 가족건강성($\beta = 0.03, p < .001$), 외적 보호요인의 자아탄력성($\beta = 0.23, p < .001$)으로 나타났다으며, 설명력에 대한 적합도($F = 83.31, \text{Adj } R^2 = 0.6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IV. 논의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삶의 질, 가족

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와 대상자들의 삶의 질 정도는 5점 척도에서 중앙점보다 높은 3.23점이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사용한 대학생 대상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9]인 3.37점과 비슷한 수준이고, 청소년 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 평균평점인 4.12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5]. 그러나 각 연구 별로 삶의 질 측정 도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 간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삶의 질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삶의 질 하위 영역의 신체적 건강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9]과는 대조적으로 남자 고등학생들은 삶의 질 하위 영역 중 신체적 건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신체적으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충분한 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보이고, 주중에는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거나 일찍 기상해야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으로, 또래 미국 청소년의 수면량(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짧다고 한다[25]. 신체적 피로감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으로 청소년이 인지하는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의 자살, 학교 폭력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본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15].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가족건강성(5점 척도)은 중앙값보다 높은 3.62점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 수준을 보였다. 하위 영역에서는 감사와 애정정서, 가족에 대한 존중, 역할충실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자신의 가족을 건강한 상태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안정 영역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낮은 가족 건강성을 나타냈다. 가족 건강성은 대상자의 삶의 질과 학교적응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가족이 건강한

상태일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며, 학교적응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6].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원에 대한 존중과 유대의식,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와의 유대와 가치관 목표공유가 강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아지므로 가족체제의 사전예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제도적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된 가족강화프로그램의 보급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가 인지하는 자아탄력성(6점 척도)의 평균평점은 4.06점으로 개인내적 특성 4.11점과 외적보호요인 4.00점으로 나타났다. 차은주[1]의 연구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남학생의 자아탄력성 3.90점, 여학생의 자아탄력성 4.04점으로 개인내적 특성의 자아탄력성이 외적보호요인의 자아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또래 차원의 외적 보호요인의 자아탄력성은 학교 적응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들[5][7][13][26]을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의 관련 요인이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김영민과 임영식[7]은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과 역경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처리하는데 기여적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관련 특성 중 학업성적, 경제수준, 흡연유무, 음주유무, 자살시도, 자살생각, 거주

지역, 아버지의 직업형태, 어머니의 학력이 학교적응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거나, 부모교육과 가정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2][6][27][28]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적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배와 신민섭[29]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자살생각이 주로 부모, 이성 친구, 선생님과의 대인관계 갈등에서 유발되고, 특히 이러한 대인관계 갈등에는 학업문제와 외모에 대한 고민이 큰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갈등이 적거나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적응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개방적으로 얘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을 함께 고려함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직업이 정규직이고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적응 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와 가족이 연계되어 고등학생들을 사회적, 심리적으로 지지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영향 요인으로 학업성적, 자살생각, 삶의 질(정신적 건강, 생활환경 영역), 외적보호요인의 자아탄력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4-6]과 자아탄력성과 삶의 질이 학교적응에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5][7-9][19]과 일치한다. 이숙영[5]은 가정환경을 통해 강화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감소시켜 학교적응에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최민용과 원상숙[6]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족의 사회와의 유대와 가치관 목표 공유가 강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아지고,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민과 임영식[7]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이고 특히 부모의 과잉적 양육은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의 관심과 관여가 중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능력 이상의 기대는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도와 줄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정아와 이인수[2]는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 모두에게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승현과 심미영[30]은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정승현과 심미영[30]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업성취라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물질적 도움, 문제해결에 대한 조언, 다양한 정보 및 정서적 안정 등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자살생각은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자살시도의 심각한 예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31].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절망감,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교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32]. 그러므로 남자 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자살예방교육,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스트레스는 부정적 요인,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30]. 그러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 또래 차원의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외적 보호요인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면 학교적응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조절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심리적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 일어나게 되는 자살생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건강성을 높이고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주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실무 측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자살예방교육,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보건사업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569명의 남자 고등학생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학교적응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남자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 수준은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삶의 질,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과 양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자살 시도나 자살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 거주 지역이 시·군인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정규직이며,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았다.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영향요인은 학업성적, 자살생각, 삶의 질(정신적 건강, 생활환경),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외적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1.4%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소도시의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을 확대하고 무작위 표집을 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규명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요인을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자아정체감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등을 검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의 증진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증진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차은주,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2] 임정아, 이인수,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제15권, 제2호, pp.37-62, 2006.
- [3] 교육부 보도자료,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발표, 2013년 9월 4일.
- [4] 남영자, 박태영,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4호, pp.47-71, 2009.
- [5] 이숙영,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 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1호, pp.17-145, 2012.
- [6] 최용민, 원상숙,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호, pp.199-216, 2013.
- [7] 김영민, 임영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2호, pp.343-366, 2013.
- [8] 김민정, 류진아,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예측 변인”,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2호, pp.231-255, 2012.
- [9] 김노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4호, pp.1-19, 2011.
- [10] 박민주, 황기아,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제 10권, 제2호, pp.43-51, 2007.
- [11] 이현립, 천미숙,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학교 생활 적응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511-541, 2003.
- [12] 주현정,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3] 구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4] The WHOQOL Group,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pecial issue on health - related quality of life: What is it and how should we measure i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41, No.10, pp.1403-1409, 1995.
- [15] 김아름,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6] 한용민,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7] 유영주,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19-151, 2004.
- [18] 김경은, 최은희,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4호, pp.641-653, 2010.
- [19] J. M. Richman, G. L. Bowen, and M. E. Woolley, School failure: An eco-interac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2004.
- [20] J. Bolock and A. M. Kreman, “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21] E. M.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1079, 1996.
- [22]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한국신경정신학회*, 제39권, 제3호, pp.571-579, 2000.
- [23] 이해리, 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2호, pp.353-371, 2006.
- [24] 김정남,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5권, 제3호, pp.497-517, 2013.
- [25] C. K. Yang, J. K. Kim, S. R. Patel, and J. H. Lee, “Age-related changes in sleep/wake patterns among Korean teenagers,” *Pediatrics*, Vol.115, pp.250-256, 2005.
- [26] 강영진, 이정화,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 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pp.59-71, 2014.
- [27] Selcuk R. Sirin,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 Analytic Review of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75, No.3, pp.417-453, 2005.
- [28] S. Tong, P. Baghurst, G. Vimpani, and A. McMicheal, “Socioeconomic position, material IQ,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s*, Vol.151, pp.284-288.
- [29] 박광배, 신민섭,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0권, 제1호, pp.298-314, 1991.
- [30] 정승현, 심미영,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275-284, 2014.
- [31] 이영식, 서동수, 양석훈, 이길홍 “한국형 청소년

자살사고 설문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5권, 제2호, pp.168-177, 2004.

[32] 유재순, 손정우, 남민선,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19-430, 2008.

저 자 소 개

박 연 우(Yeon-Woo Park)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졸업
- 2013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학교보건, 청소년 건강

김 경 희(Kyung-Hee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 졸업
- 1997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 간호이론, 기본간호술기, 청소년 건강